

삼부토건(주)경춘선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선안전, 후시공으로 무재해 준공을 쌓아가는 현장

실록의 계절!산행하기 좋은 계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등산로에는 하나하나에 정성과 소망이 담긴 돌을 총총히 쌓아올라간 돌탑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성껏 쌓아올려진 돌탑에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무한한 사랑이 느껴진다. 그래서 산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등산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무재해 준공이라는 탑을 하나 하나 쌓아올리는 곳이 있다.

경춘선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중 제3공구로 마석에서 금곡까지(총연장 57km 터널 316km 교량 1.144km 노반 1.333km) 시공을 담당하는 삼부토건(주)경춘선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신건찬 소장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인지 자식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기운을 현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 포근했다.

“현장은 깨끗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신건찬 소장의 의지와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영중 안전차장의 뜻이 무재해 준공이라는 목표로 현장에 단비가 되어 내린다.

무재해 준공을 위해 오늘도 정성스럽게 탑을 쌓듯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보내는 이곳 현장에 들어가 본다.



▲ 신건찬 소장

건설안전리포트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장

배가올바른길로가기 위해서는 사공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재해 준공으로 가기 위한 이 곳 현장에서는 신건찬 소장의 안전 의지가 확고하다.

협력업체 대표와 첫 만남의 자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현장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건설인 생활 25년 중 10년을 현장 소장으로서 터널, 댐, 교량, 항만, 발전소 등 모든 토목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신건찬 소장은 안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환경이 변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이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발전에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제주시 도지사상,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것과 최근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지난 12월에 수상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현장을 대표하는 책임자와 관리자에게만 있다고 해서, 무재해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현장의 위험공정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에게 목표 달성 가능의 열쇠를 쥐고있음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계몽활동,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를 꾀하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그리고 위험예지활동, 자율적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추진하여 함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현장에 맞는 안전으로 무재해 현장 이끌어

경춘선 복선전철 3공구 현장은 5월말에 무재해 1배수인 35만시간을 달성했다. 완벽한 안전 시설 설치 및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 예방에서부터 전원 참여의 안전활동과 자율적 참여의 안전활동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를 지향함으로써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전 직원이 3일 주기로 돌아가며 실시하고 있는 “1일 안전당번제”이다. 안전관리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알게 함으로써 전사원이 참여하는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당번은 매일 현장 자체 제작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진행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현장에서는 감리측과 합동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로자 매일 생일자를 위한 파티, 근로자 휴식공간(쉼터) 조성, 3·5운동을 통한 깨끗한 현장 조성 등 다양한 안전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재래형 재해 근절

경춘선 복선전철 3공구 현장에서 가장 위험 공종으로 터널공사를 말한다. 공법은 NBM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터널자체의 가시성, 강지보, ROCKBOLT 등으로 터널자체의 지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측관리 등 안전관리가 철저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중 작업시행전·중·후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요건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래형 재해, 그 중 건설업 재해율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재해는 건설현장의 적이다.

이 곳 현장에서는 추락재해를 적으로 간주하고 추



락재해 8대 가시적인 작업발판, 사다리, 개구부덮개, 안전난간대, 이동식비계,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재래형 재해 중 추락재해 근절에 나서고 있다.

끝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3공구 현장의 김영중 안전차장을 비롯한 모든 가족은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간적인 방심으로 발생한 재해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 더 나아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신진찬 소장은 말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선진 안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맺는다. 

<최종덕 기자>

